본 페이지는 무선/날개제본 본문파일 편집 시 유의사항입니다.

페이지 수 오류 방지를 위해 **실제 편집 작업 시 본 페이지는 삭제 후 PDF 파일로 변환해주세요.**

**이 파일은 신국판으로 제작을 원하실 경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과정 중 여백 없이 꽉 차게 들어가는 이미지나 배경색이 있을 경우, 하얀색 여백이 보이지 않도록 크기를 꽉 채워주세요.

인쇄제작 시 필요한 사방여백 3mm가 포함된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158mm x 231mm) 상하좌우 3mm는 실제 제작 시 재단되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페이지 크기 및 여백설정 변경은 지양합니다. 여백 변경 시에는 상하좌우 20mm까지만 제작 가능합니다.

**얼음나무 숲**

장편 추리 소설

**얼음나무 숲**

**장편 추리 소설**

**하지은**

**얼음나무 숲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발행일 0000년 00월 00일 (발행일은 여유있게 입력해주세요)

지은이 하지은 (저자명을 입력해주세요)

출판사 퍼플

출판등록 제300-2012-167호 (2012년 09월 07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전화 1544-1900

홈페이지 www.kyobobook.co.kr

**ⓒ 하지은 2012(저자명 발행연도를 입력해주세요)**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목차**

Overture

#00 여전히 겨울인 이곳, 에단에서

#01 세 명의 천재

#02 악기 경매

**Overture**

얼음나무 숲을 등진 채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카논 홀.

중앙 앞쪽에는 귀빈들을 위한 넓고 안락한 자리가 5백 석 배치되어 있고 양옆에는 길게 나열한 보통 의자가 8백 석씩 놓여 있다. 그 외에도 5층까지 있는 특별석의 총수는 5백 석. 텅 비어 있는 도합 2천6백 석의 그 객석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음악가로서는 숨이 막힌다. 그러니 그 모든 의자가 사람들로 가득 찬 중요한 심사라도 있는 날에는, 신인 음악가들은 무대에 서자마자 그대로 얼어붙기 일쑤다.

카논 홀에서 평생을 연주한 거장 중의 거장조차도 언제나 그 무대에 서면 떨린다고 말하는 곳. 음악의 도시이니만큼 스스로가 수준 높은 청중이라 생각하는 모든 귀족들이 모여 냉엄한 눈으로 음악가들을 ‘선별’해 내는 곳. 그곳에서는 신인 음악가들에 대한 격려의 박수도, 실수에 대한 너그러운 포용도, 분위기에 맞춘 호응도 없다. 어쨌거나 스스로를 수준 높은 청중이라 자부하는 귀족들은 그런 짓을 경박하다고 여기니까.

그러나 그 수준 높은 청중들을 단 한 번도 ‘청중’이라 부른 적 없는, 그 숨 막히는 무대에서 오히려 청중들을 오만하게 바라보던 단 한 명의 음악가가 있다.

아나토제 바옐. 영원한 드 모토베르토.

1628년, 키세의 대예언이 정확히 종말을 고하던 해, 음역의 신 모토벤의 성소이자 모든 음악가들의 고향 ‘에단’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의 처음과 끝에는, 언제나 그가 있다.

#00 여전히 겨울인 이곳, 에단에서

수많은 잔가지들이 현처럼 늘어서 있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지휘자가 침묵으로 지휘봉을 대신하며

차갑고 흰 바람이 노래하는 곳

그곳은 얼음나무 숲

1628년의 마지막 날, 파스그라노들은 조용했다.

대大예언자 키세가 말한 종말의 해 마지막 날임을 생각하면, 그것은 의외였다. 키세의 열렬한 추종자인 그들은 오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임을 진심으로 믿고 종말이 올 때까지 그들의 생을 음악으로 태워 버리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저녁이 되기까지 작은 모임조차 갖지 않았다. 조용히 가족들과 작별을 고하고 있을까. 종말을 진심으로 믿는 그들이라면 가능할 법도 한 얘기였다.

그에 비하면 마르티노들은 그런 파스그라노들을 비웃으며 여러 모임을 가졌다. 술잔을 기울이며 키세는 지상 최대의 사기꾼이었노라 비웃고, 떠들고, 마셨다. 가끔 음악이 첨가되었으나 잔뜩 흥분한 그들은 재미없는 마르틴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외쳤다.

나를 부르는 그들의 혀 꼬인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나는 가피르 부인의 살롱으로 향했다. 그날만큼은 매일 음악이 끊이지 않는 그곳도 조용했다. 가피르 부인은 나를 맞이한 다음 의자에 앉히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우리는 침묵의 장엄한 연주를 듣고 난 뒤 일어섰다. 문 앞에 서서 인사를 나누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말이 없는 부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녀의 집을 떠났다.

술에 취한 음악가들, 음울한 그늘을 드리운 채 말없이 걷는 음악가들, 거리에는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었으나 정작 음악은 없었다. 1628년 마지막 날, 정말로 기묘한 날이었다. 이날 유일하게 연주회를 여는 음악가는 단 한 명뿐이었다.

‘아나토제 바옐, 영원한 드 모토베르토

1628년 마지막 연주회

카논 홀, 저녁 7시’

급하게 만든 것이 분명한 그 벽보를 보며 나는 찢어 버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겨우 사흘 전 알려졌을 뿐인데 카논 홀의 그 수많은 좌석은 벌써 매진이다. 문득 바닥을 내려다본 나는 진흙덩이를 발견했다. 무슨 생각을 했던지 그것을 손에 묻혀 벽보를 마구 문질렀다. 그러고 나서 다시 벽보를 바라보던 나는, 부끄럽게도 울고 말았다. 누가 볼까 얼른 눈물을 닦아 내다가 진흙이 얼굴에도 묻었다. 나는 그런 꼴을 한 채 카논 홀로 향했다.

카논 홀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레나르 카논 씨는 언제나처럼 나를 대기실로 안내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어 거절했다. 레나르 씨는 내 얼굴을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맙게도 이유는 묻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객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청중들의 기대감 속에 나타난 그 남자는 놀랍게도 여행복 차림이었다. 청중들은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여명을 들어 올렸을 때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역시 그것인가. 나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것은 얼핏 보면 쓸모없는 나뭇조각 같다. 불 속에서 타다가 만,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나뭇조각 말이다.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 나무는 그러나 제법 단단하다. 그렇기에 희대의 악기 제작자이자 카논 홀의 주인인 J. 카논도 그런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아무튼 모든 악기 제작자들의 상식을 뒤엎은 그 나무의 정체가 밝혀진 적은 없다. 누군가는 벼락 맞은 올레산 나무라고도 했고, 누군가는 J. 카논이 직접 기른 이상 식물이 재료일 거라 했다.

그 악기의 신비로운 재료가 무엇이든, 그것은 하얗다. 새하얗기보다는 말 그대로 타 버려서 그렇게 된 색처럼 보이지만, 아름답다. 어떤 칠도 하지 않은 원목 그대로의 색이다. 그래서 J. 카논은 여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는 그 악기를 손에 들고, 무얼 할 셈이냐. 바옐.

바옐은 대답 없이 여명을 들어 올렸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아 자신의 어깨에 올려 앉히듯 그는 조심스럽게 여명을 어깨에 놓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자신의 턱을 얹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눈을 감는다. 나는 저 장면을 볼 때마다 괜히 낯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마치 서로를 애무하는 연인의 은밀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연주는 바로 시작되었다. 원래 바옐은 연주를 시작하기 앞서 활로 현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그렇기에 나는 바옐에게 농담처럼 무대 위에서 그런 음탕한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이렇게 급히 시작하는 이유는 뭔가. 종말의 시간은 이미…….

잠시 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무대를 바라보았다. 바옐의 연주는, 그것은 연주가 아니었다. 바옐은 아무렇게나 활을 움직이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아무 소리도 되지 않았다. 바이올린을 모욕할 생각으로 다루는 무뢰배나 할 짓이었다. 불쾌하고 듣기 싫은 소음이 연주회장을 가득 채웠다.

청중들은 미심쩍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아직까지 소란을 일으키진 않았다. 스스로가 수준 높은 청중이라 믿는 그들은 바옐의 음악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 애쓰고 있었다. 저 훌륭하고 유명한 마에스트로의 연주라면 아무리 기괴해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필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려 애쓰는 그들을 보며 나는 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미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바옐의 그런 무례한 연주가 계속되자 사람들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나는 차라리 그들을 대신하여 바옐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청중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고 소음과 불평이 연주와 뒤섞여 불협화음을 이뤄 낼 때, 바이올린의 음색이 갑자기 달라졌다.

마치 지금까지의 무례를 용서해 달라는 듯, 부드러운 음이 천천히 청중들을 달랬다. 청중들의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러면 그렇지, 분명히 뭔가 뜻이 있었을 거야. 그들은 납득하는 얼굴이었다. 바옐은 은은한 미소까지 띤 채 아름다운 음색을 연주했다. 나는 친구의 치부를 본 것처럼 어쩔 줄을 모르고 바옐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달콤한 조롱이었다.

사람들이 잠잠해지자 음악이 점차 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다. 바옐이 활을 움직이는 속도는 여느 음악가들이 흉내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재빠른 음률이 오르락내리락 사람들의 숨을 가쁘게 했다. 실제로 헐떡이는 사람도 있었다. 절정으로 치닫는 몸부림과 호흡이 느껴졌다. 그럼에도 바옐의 격렬함은 멈출 줄을 몰랐다. 나마저도 숨이 턱턱 막혀 몇 번이고 가슴을 두드렸다. 여인들 중에는 어쩔 줄 모르고 연인의 옷깃을 부여잡는 이들도 있었다.

미친 듯이 현을 오르락내리락하던 활이, 끝내 격렬하게 몸을 뒤튼다. 탕!

아……!

누군가가 참을 수 없는 탄성을 질렀다. 현이 끊어졌다. 카논 홀에서 이런 실수라니, 게다가 바옐은 드 모토베르토의 호칭을 가지고 있는 마에스트로다. 그러나 바옐은 멈추지 않았다. 표정 하나, 동작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현 하나가 끊어진 채로 전율적인 연주가 계속되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절정의 순간, 또다시 끊어지는 현 하나.

그제야 청중들은 그것이 마에스트로의 실수가 아님을 알았다. 청중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다만 헐떡였다. 현 두 개가 없는 채로 계속되는 기이하고 반복적인 음색. 다시 참을 수 없는 절정에 달한 음에서 또 하나의 현이 끊어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탕!

그것은, 그것 자체로 음악이었다. 기괴하고, 충격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청중들은 더 이상 그 음악을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몸에 남아 있는 본능으로 ‘느꼈다.’ 그들은 자리에서 들썩거리고 몸을 비비 꼬았다. 뜨거운 숨이 여기저기서 토해졌다.

‘바옐의 격주야말로 사람을 제대로 우롱하지. 그가 경멸하는 관객들을 가장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카논 홀에서 천박하게 만드니까. 바옐의 연주가 절정에 이를 때면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황홀경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표정을 짓지.’

갑자기 트리스탄의 말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다.

그를 존경하는 청중들을 천박하게 만드는 음의 끝에서 마침내 마지막 현이 끊어졌을 때, 바옐은 눈을 떴다. 엉망이 된 여명과 함께 활을 든 손을 늘어뜨린 채로 그는 객석을 주욱 둘러보았다. 그러곤 탈진한 채 어쩔 줄을 모르는 그의 수준 높은 청중들을 향해, 그가 말했다.

“이제까지 제 쇼를 관람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바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곤 겸손하게 덧붙였다.

“이 귀머거리들아.”

어깨를 으쓱하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옐은 끊어진 현이 덜렁거리는 여명을 들고 그대로 무대 위에서 걸어 나갔다. 그를 붙잡는 이도, 박수치는 이도, 입을 여는 이도,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아나토제 바옐 드 모토베르토의 마지막 연주. 내가 본 마지막 모습.

그날 바옐은 사라졌고, 다음 날 태양은 키세를 비웃기라도 하듯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1628년이 끝나고 1629년이 왔다. 세상은 그 무엇도 달라진 것 없이 마찬가지로 어지럽고 바쁘게 흘러갔다. 종말은 없었다. 그에 대해 파스그라노들이 뭐라고 변명했는지, 마르티노들이 그들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나는 하나도 듣지 못했다.

내 영혼은 1628년의 마지막 그날 종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01 세 명의 천재**

살아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그 나무들의 숲은

고정된 겨울 동화의 세계

그곳에 음악이 있다

모든 음악가들의 고향이자 모토벤의 성지인 에단.

에단은 마치 바다와도 같은 곳이다. 어디에서 시작된 음률이든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결국 에단이다. 연주 여행을 떠났던 음악가들도 때가 되면 연어처럼 에단으로 돌아온다.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지금 숨 쉬는 동안에도 음표가 섞여 들어오는 이곳의 공기는, 결코 잊지 못할 테니까.

대예언가 키세가 예언한 종말의 1628년으로부터 15년 전, 당시 열 살이었던 나는 에단 음악원에 입학했다. 셋째 아들로 태어난 나는 가문을 물려받을 일이 없었고 따라서 무엇을 시킬까 고민하시던 내 아버지가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음악가였다. 우리 가문이 에단에서 제법 명망 있다고 알려진 귀족가이니만큼 집안에 음악가가 하나쯤은 있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다.

부감 같은 거 있어?”

“그런 거 없어.”

나는 즉시 대답했다. 트리스탄은 씩 웃고는 내게 어깨동무를 해 왔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런 분위기가 싫지 않았기에 잠자코 그가 이끄는 대로 따랐다.

“자, 그러면 친구 네가 궁금해하는 본론에 대한 얘길 해 볼까. 사실 난 이번 신년 음악회에서 같이 연주할 사람을 찾고 있어. 바이올린 주자는 이미 구해 뒀고, 난 첼로를 연주할 거야. 그러니 네가 피아노를 맡아 줬으면 해.”

“트리오를? 그런데 신년 음악회라면 혹시…… 카논 홀에서 매년 열리는 그거 말이야?”

“그래그래. 눈치 챘군, 친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학생 신분으로 카논 홀에 선다는 거 말이야!”

카논 홀. 모든 음악가들이 바라 마지않는 꿈의 전당. 거장 중의 거장만이 독주할 수 있다는 무대. 3년에 한 번 열리는 ‘콩쿠르 드 모토베르토’도 그곳에서 진행된다. 카논 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다니, 이게 정녕 꿈인지 생시인지.

“그게 정말 가능한 거야?”

“암, 그렇고말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곁다리에 불과하지만 말이야. 카논 홀에서 신년 음악회에 초대한 것은 내가 아니라…….”

트리스탄은 나를 이끌고 도착한 곳의 문을 열었다.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마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처럼 얌전히 앉아,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 둔 채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나토제…… 바옐?”

“또 보는군, 고요.”

카논 홀에서 이례적으로 신년 연주회에 학생 파트를 넣은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가장 주목받는 천재 신인 아나토제 바옐을 원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 신분인 데다 나이도 어린데 카논 홀에서 독주를 하게 하는 건 과분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몇몇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실내악단을 꾸릴 것을 명했다. 영광스럽게도 그 실내악단에 나와 트리스탄이 뽑히게 된 것이었다. 바로 바옐에 의해서.

“악보는 이미 내가 준비해 뒀어.”

바옐이 내게 악보를 건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처럼 거만하거나 빈정거리는 태도가 아니었다. 게다가 맞춰 보는 것 따윈 안 한다던 그 바옐이.

“그러면 한번 같이 연주해 볼까. 지금 악보를 보고 곧바로 칠 수 있겠어, 고요?”

“맞춰 본다고?”

내가 의심스럽다는 듯 바옐을 향해 되묻자 트리스탄이 낄낄거리고 웃으며 내 등을 쳤다.

“당연히 맞춰 봐야지. 그럼 따로 연습할 셈이야? 이 친구 재밌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바옐을 바라보자 바옐은 내 눈을 피하며 단조롭게 말했다.

“트리스탄과 나는 이미 한번 맞춰 봤어. 지금 바로 칠 수 없다면 다음에…….”

“칠 수 있어.”

나는 오기를 부리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심호흡을 하고 먼저 눈으로 악보를 한번 훑은 다음, 곧바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중간에 한 번 머뭇거리긴 했지만 실수 없이 끝까지 연주해 냈다. 어떠냐는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자, 트리스탄은 휘파람을 불었고 바옐은 그저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하자.”

그날의 연습은 생각보다 무척 즐거웠다. 함께 맞춰 볼 때마다 매번 즉흥적으로 다른 기교를 사용하는 바옐은 정말 천재라고밖엔 할 말이 없었다. 그에 비해 트리스탄의 첼로 연주는 의외로 평범했다. 아나토제 바옐이 제일 먼저 선택한 첼리스트기에 에단 음악원의 또 다른 천재가 아닐까 기대해 봤던 나는 약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소리를 돋보이게 하려기보다 최선을 다해 바옐을 보조했다. 나는 그런 트리스탄의 태도에 예전 기억이 떠올라 어쩐지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그것만 제외한다면 정말로 괜찮은 연습이었다.

“다음 연습은 언제로 할까, 아나토제?”

첼로를 가방에 넣으며 트리스탄이 바옐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그가 성이 아닌 이름으로 바옐을 부른다는 사실에 나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연습이 더 필요해?”

바옐은 내키지 않는 듯 되물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트리스탄이 바옐의 등을 치며 밝게 말했다.

“맞추기 어렵거나 부족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연습 자체가 즐겁잖아. 안 그래?”

“……그런가.”

바옐은 그다지 수긍하지 않는 태도였지만 결국 이틀 후 또 연습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다. 나는 그제야 아나토제 바옐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트리스탄 벨제임을 깨달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바옐은 그에게 한없이 관대했다. 심지어 트리스탄이 함께 있을 때에는 내게도 호의를 베풀 정도였다. 하지만 단둘이 남게 되거나 트리스탄 없이 지나가다 바옐을 만나면, 그는 내게 알은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함께 연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바옐의 천재성에 놀랐다. 조금 후에는 그것을 질투하게 되었고, 마침내 존경하게 되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음악은 영원할 것이란 걸.

“나 지금 떨고 있어.”

트리스탄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신년 연주회의 날이었다. 우리는 카논 홀 무대 뒤 대기실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아니 정정, 나와 트리스탄만이 떨었다. 바옐은 마치 익숙한 사람처럼, 아니 앞으로 익숙해질 것이 분명한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있을 뿐이었다.

“신물이 날 정도로 연습했으니 실수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바옐이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실수했다간 틀림없이 그가 나를 죽이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옐도 바옐이지만, 나는 카논 홀에서 갖는 내 생애 첫 무대를 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우리 차례가 다가올수록 내 긴장감은 비장함으로 바뀌어 갔다.

<끝>